

리얼D 실적 호조, 3D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 상승

2011. 6. 27

Overview

3D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3D 영화 솔루션 라이선싱 업체 리얼D(Real D)가 2011 회계연도 4분기 매출 5,850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3D 업계의 대표주자인 리얼D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둠에 따라 3D 영화 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Briefing

리얼 D 201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순이익 430만 달러로 집계

- 글로벌 3D 솔루션 라이선싱 업체로, 전세계 약 1만 5,000여개 스크린에 자사 3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리얼 D¹⁾가 2011 회계연도 4분기(2010년 12월 25일~2011년 3월 25일)실적을 발표했다
 - 리얼 D는 전년 동기 18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과는 달리 2011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 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 매출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5,850만 달러를 기록했다
- 리얼 D 측은 3D 영화산업이 일시적인 열풍이었다는 시장의 부정적 전망에 반박하며, "미국 3D 박스오피스의 매출 감소는 세계 각국에서 개봉한 3D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상쇄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실제 얼마 전 개봉한 캐리비안의 해적: 낫선 조류(Pirates of the Caribbean: On Stranger Tides)와 쿵푸팬더 2(Kung Fu Panda 2)의 3D 매출은 각각 전체 박스오피스 매출의 66%, 60%를 차지함
 - 슈퍼 배드(Despicable Me)는 개봉 첫 주 美 3D 수익이 전체 극장 매출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어 종종 3D 영화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나, 리얼D는 "슈퍼 배드는 리얼D 라이선스 영화 중 2011년 매출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3D 박스오피스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
 - 2010 회계연도 4분기에는 리얼 D의 라이선싱을 통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영화가 2편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2011 회계연도 4분기에는 100만 달러 이상

1) 패시브 편광 방식으로 양쪽 눈에 전달되는 상이한 이미지를 통해 3D 영상을 구현하는 리얼 D의 일회용 3D 안경은 전세계 5,000여개 상영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3D 안경 시장에서 점유율 85%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영화가 10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은행 모건 조셉 트리아티젠(Morgan Joseph TriArtisan)은 리얼D 3D 영화 시스템의 글로벌 지배력을 근거로 리얼D의 주가 전망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발표함
- o 한편, 온라인 투자정보 사이트 모틀리 폴(Motley Fool, www.fool.com)은 최근 리얼D의 어닝 서프라이즈 및 이에 따른 주가 상승 움직임을 경계하며, 리얼D의 3D 시스템은 아이맥스(IMAX)나 디지털 영화 시스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함
- 실적 발표 다음날 리얼 D의 주가는 19%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리얼 D, 삼성전자와 액티브셔터 3D LCD 패널 개발 제휴

- o 한편, 지난 5월 리얼D는 삼성전자와 함께 액티브셔터(active shutter) 기능이 내장된 3D LCD 패널 개발에 합의했음
- 양사가 개발할 3D 패널은 일반 극장에서 사용하는 리얼 D의 편광 안경을 셔터 안경 방식의 TV 시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기술의 장점을 수용²⁾
- 전 세계 극장시스템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리얼D와 셔터식 3D TV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간의 협력으로 인해, 향후 3D TV 경쟁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 양사는 내년 초 액티브셔터 3D 패널을 탑재한 23인치, 27인치 PC용 모니터를 시작으로 55인치 대형 TV까지 출시를 확대할 예정임

Analysis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3D 영화가 부진한 흥행 3D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3D 영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리얼D가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D 영화의 흥행은 곧바로 리얼D와 같은 극장 솔루션 라이선싱 업체 및 3D 안경 제조업체의 매출 호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리얼D는 소니(Sony)와 제휴를 통해 미국 대형 극장체인 AMC와 리걸(Regal)에 3D 안경을 보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도 제휴를 체결, 무안경 방식의 공세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3D 영화 솔루션이 시장에 견고하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리얼D의 주가 또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D 영화의 불확

2) 기존의 셔터식 안경보다 훨씬 가볍고 1/1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편광 안경으로 고화질 3D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각광받고 있음

실한 미래에 대한 논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Source

1. Hollywood Reporter, '3D Technology Company RealD Posts a Surprise Quarterly Profit', 2011. 6. 9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3d-technology-company-reald-posts-196644>
2. Motley Fool, 'RealD Shares Popped: What You Need to Know', 2011. 6. 15
<http://www.fool.com/investing/general/2011/06/15/reald-shares-popped-what-you-need-to-know.aspx>